

# ‘성(性)’으로 가는 숨은 길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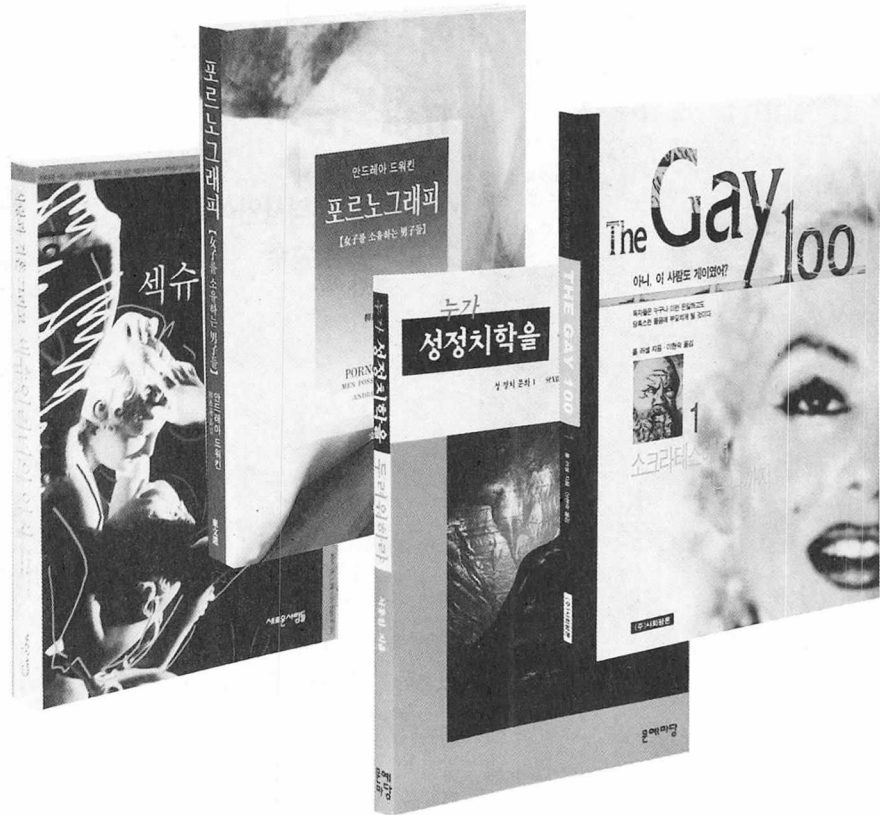
성담론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해석

세기말을 보내며 수많은 사회상의 변화논리가 돌출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성(性)에 관한 담론들이 책을 통해 재구성되고 있다. 현생인류라는 종을 유지해왔던 남과 여라는 불평등한 배치구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오는 수많은 성담론들은 정치 사회 역사 문화 등 인간생활의 전면에 걸쳐 새로운 논의와 해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최근 출간된 《사랑과 결혼 그리고 섹슈얼리티의 역사》(이선희 옮김, 새로운사람들) 조르주 두비, 장 보테르, 자크 솔 등 현존하는 18인의 역사학자들이 새롭게 쓴 성에 관한 소론들이다. 그동안 내밀하고 독립적인 공간 속에서 시선을 거부한 채 숨어 있던 ‘역사속의 성’을 21세기의 광장으로 끌어내고 있다.

문학작품이나 미술작품, 설화 등을 통해 주로 전해온 성의 과거사를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이 책은 역사가 남겨 놓은 명백한 흔적 중에서 가장 소극적인 몸짓으로서 있는 성의 흔적들을 찾아 그것들의 객관적인 사실과 가치를 서술하고 있다. 바빌로니아의 사랑, 로마시대의 결혼과 피임의 의미, 사랑과 계급과 전쟁의 함수관계, 출산과 여성해방 등 현실적으로 존속했던 성의 역사를 밝히고 있다.

게이 액티비스트로 불리는 문화비평가 서동진 씨의 《누가 성정치학을 두려워하라》(문예마당)는 국내에서 논의되는 성의 정체성을 총괄하는 책이다. 성에 대한 근대적 관념들이 무너지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담론들을 자신의 시각으로 정리하고 있는 이 책은 1부에서 이성애중심주의



(heterosexuality), 성인중심의 성, 성기중심의 성(genital sexuality) 등 과거의 성에 관한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인간과학으로 성숙하지 못한 키체가 연구소를 비판하는 등 전후 자본주의의 성담론이 취하는 모순과 뒷모습을 분석하고 있다.

2부는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꼬마유령 캐스퍼> 등 영화 및 미술작품에 나타난 이기적인 성의 편견들을 조목조목 논박함과 동시에 엘리스나 프로이트에 머물던 성의 관념을 진일보시킨 푸코를 통해 “성이란 자아의 진실이며 다양한 사회적 존재들의 진리”라는 걸어를 이끌어낸다.

미국의 급진적 페미니스트인 안드레아 드워킨의 《포르노그래피》(유혜연 옮김, 동문선)는 포르노그래피 안에서 여자를 물화(物化)하여 지배하는 남자의 의식구조, 나아가 권력구조를 밝혀낸

다. 실제 포르노그래피가 이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면서 그것이 통용되는 지금의 사회상을 실증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결국 포르노그래피는 어느날 나타난 ‘떠돌이 별’ 같은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문화가 만드는 가치관과 역사, 그리고 고정관념이 합쳐져 만든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포르노그래피를 통해서 각자의 성에 부과된 역할을 배우고 실천하고 확대 재생산한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포르노그래피를 제대로 읽어낸다면 남자와 여자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까지 밝혀낼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포르노그래피로 가는 숨은 길 찾기를 가르쳐주고 있다.

—허연 기자

## 컴퓨터 조판 & 바코드

- 서체견본을 보내드립니다.
- 홍익에서 개발한 S/W 및 보강된 내용
  - 사진 및 색인 자동분류프로그램(한글·한문·영문혼용)
  - 바코드출력 S/W (ISBN·ISSN·등재부) 및 WP 변환S/W
  - 조합될 수 있는 모든 한글·한문 처리, 약물 5000종 추가
  - 한글 33종, 한문 17종(교과서체4종), 러시아어 8종, 일본어 8종 추가
- 홍익의 시설
  - 편집입력기 30대 · 출력기 3대

바코드인쇄원판제작이용안내 : 전화나FAX를이용하시어발행자번호서명식별번호,부가기호만 알려주십시오.

**弘益컴퓨터印刷(株)** 마포구 서교동 337-25 장수빌딩 2층  
**弘益電子出版研究所** ☎ : 323-6333~5 FAX : 337-0460

## 숨쉬는 향아리를 아십니까?

향아리는 장이나 김치에 깊은 맛을 더해 주는 발효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들은 향아리가 ‘숨을 쉰다고’ 말해왔고, 용기장이 역시 ‘장인’의 명예를 잃지 않았습니니다.  
 책은 정신을 담은 향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인의 숨결이 담긴 책은 숨쉬는 향아리, 즉 좋은 책입니다.  
 임씨네 편집공방은 장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임씨네 편집공방 사람들과 만나보십시오.

**임씨네 편집공방** 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장교빌딩 1202-1호 (우)100-760  
 TEL:(02)776-5207,5208 FAX:776-5209

# 정보통신과 산업구조의 혁명적 변화

## 개별기업, 미래산업구조 변화 모습 가늠한 세 권의 책

정보통신의 폭발적인 발전은 개별 기업의 생산, 관리, 마케팅뿐만 아니라 전산업구조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 이 혁명적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이 가져올 미래 기업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가능하게 해주는 세 권의 책이 나왔다.

《전자상거래》(쓰키지 다쓰오 지음, 이신우 옮김, 중앙일보사)와 《21세기 마케팅 정보혁명》(로버트 블랫버그 외 편저, 주우진 외 옮김, 김영사) 《메가미디어 대전쟁》(케빈 매니 지음, 형선호 옮김)이 그것이다.

《전자상거래》는 최근 기업경영에 혁신을 몰고 온 개념인 CALS(통합물류, 생산시스템)나 EDI(전자문서교환), EC(전자상거래) 등 여러 가지 기업간 네트워크 구상이 기업활동과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보여준다.

저자가 '범산업 네트워크'라 명명한 이러한 네트워크 혁명은 산업전반에 걸친 표준화를 통해 개별 기업의 영역을 뛰어넘어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이제 경제는 그야말로 '글로벌화'된다. 세계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가능해지고, 네트워크 기술자의 확보가 기업활동의 핵심적 조건이 되며 정보서비스 산업이 신산업으로 새롭게 부각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예측.

《21세기 마케팅 정보혁명》은 마케팅의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정보혁명의 현주소와 미래의 발전경향을 밝히고 있다. 수집과 전송, 관리, 해석, 모델,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 정보가치 사슬의 5단계에 따른 최신 정보기술을 총정리해서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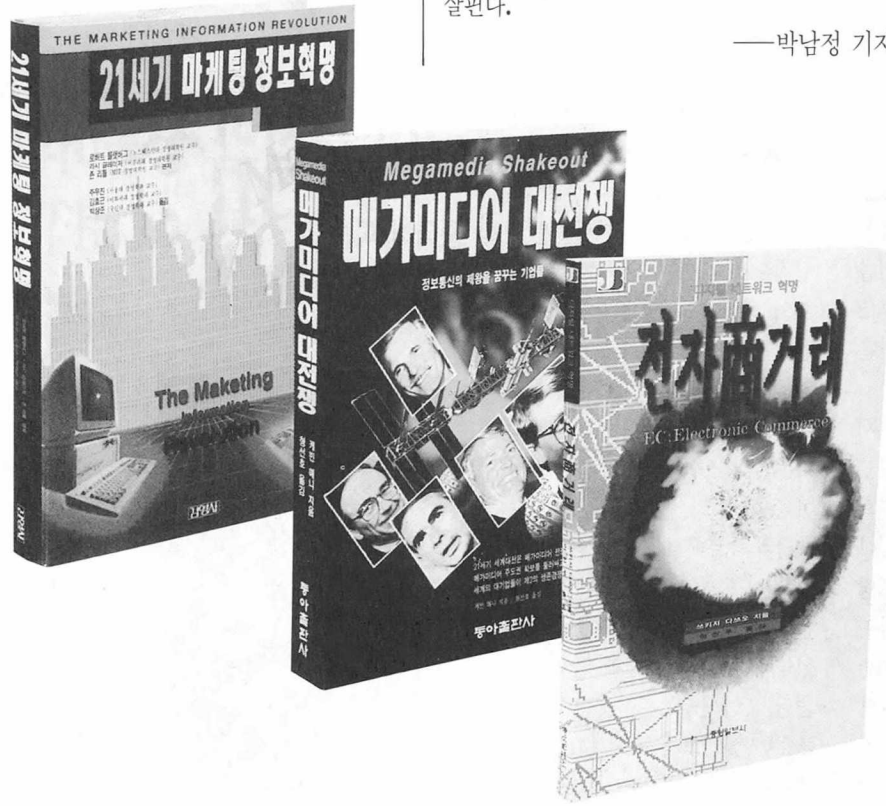
한다.

가령, 데이터 수집과 전송과 관련하여 컴퓨터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이용한 POS데이터의 수집과 전송과정이라거나 오라클, 패러독스, DB3 등 최신의 데이터관리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마케팅 분야의 최대 이슈인 '고객중심'의 관점에서 정보기술에 의한 경영의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 크다.

매스미디어, 멀티미디어를 넘어서 미래사회는 메가미디어의 사회다. 정보고속도로, 5백개의 TV채널, 디지털 통신 등 '메가미디어'로 이름할 수밖에 없는 고도의 정보기술 산업은 누가 주도하는가. 《메가미디어대전쟁》은 미래산업의 주도적 역할을 할 '메가미디어'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대표적 기업들의 특성과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들의 특성을 흥미롭게 기술한 책이다. 디즈니, IBM, 바이어컴,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표적인 기업의 강점과 약점, 장기적인 전략과 기업문화, 지도자들의 특성을 지도력과 비전에 초점을 두고 살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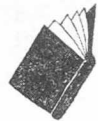
—박남정 기자



# 기표의

세상에는 네 가지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내용과 형식이 모두 뛰어난 것,  
내용은 훌륭하나 형식이 뒤따르지 못한 것,  
형식은 그럴듯하나 내용이 보잘것없는 것,  
내용과 형식이 모두 형편없는 것.

다름기획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한 내용을 적절한 그릇에 담아내는 것, 바로 다름기획의 일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기획에서부터 제작까지,  
편집·출판의 모든 것은 이제 다름기획에 맡겨 주십시오.  
고객 여러분의 책이 품위를 더해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 표지 및 본문 디자인
- 편집대행
- 광고카피
- 일러스트



다름기획

DARUM Publication Design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38번지 성지빌딩 1218호 Tel: 707-0572 Fax: 707-0573

북한말을 알면 북한이 보인다!!

특담잡지 총 2

주재수 씀·신국판·608쪽·값 22,000원

## 남북한말 비교사전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 중국 동포의 조선말과 소련 동포의 고려말을 비교한 최초의 **민·족·어 사전**.

【부록】 북한, 중국, 옛소련 동포들의 문학 작품 목록

나그네(남편의 육진 지방말)/ 보탬(부조의 중국 교포말)/ 김각질·놀각질·달아나각질·웃각질·신격질/ 사냥바치·총바치·귀염바치·주눅바치·호사바치... 새록새롭다·애모쁘다...

·우편 주문을 받습니다.

송금 즉시 연락주시면 책을 보내드립니다. (예금주:이근술/국민은행:068-05-0017-994 /우체국:010231-0051590-12)

서울시 중구 필동3가 15 문화빌딩 401호 전화:268-8891 팩스:268-8893